

• 마태복음 5:43-48

**혹시 우리는 살인의 방조자가 아닙니까?** 제6계명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 가는 자들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영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랑하라’로 읽힙니다.

**잔혹한 범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울부짖고 도와달라는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했고 냉담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분산했습니다. 결국, 큰 재앙이 우리 모두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라 슬레징어와 스튜어트 보젤이 공저한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란 책에는 ‘600만+1’이라는 도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유럽 국가들은 침묵했고 살인을 ‘방조함’으로 ‘살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죽음은 가볍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그 더해지는 사람 ‘+1’이 나라면 어떨까요?

**원수라도, 살인자라도 사랑해야 합니다(마 5:43).**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임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보복과 같은 행동양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로 5:10).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요 13:34). 원수들에게도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잘했는가가 아니라 영혼을 구했는가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 ① 무관심, 무정함 가운데 죽어 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 ② 그들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